

# 무한한 인도 정신문화의 세계

김형준 엮음 《이야기 인도 신화》

인간은 누구나 자기 근원을 알고자 하는 욕구에서 일생동안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욕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본능에 가까울 정도이다. 젊어서는 이러한 문제를 잊고 살다가도 나이들어서 죽음을 실감할 나이에 이르면, 이런 뿌리 찾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그런 까닭에 당연한 귀결이다.

이것은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 일반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연어라는 물고기는 자신이 태어난 강을 찾아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회귀하여 산란하고 죽어간다. 수초심이나 망향지심같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한 동물들의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러한 회귀본능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나 의식으로서 내면의 근저에 깔려 있다. 신화는 바로 이러한 의식이나 감정의 총집합이다. 신화는 궁극적으로,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언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여 왔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과 잇닿아 있기 때문이다.

대체 이 최초의 것을 만든 것은 누구였으며 그는 무엇인가? 불가지론은 충분한 답변이 될 수가 없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신화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신화가 명쾌한 답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하는 면이 없지는 않다.

인도 신화에서는 다양한 창세 신화가 전하는데 그 대체적인 요지를 보면, 존재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태초에 존재가 있었

다고 인도 신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존재는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중성적인 존재로서의 신의 모습이다. 인도 신화에서의 창조주는 자신으로부터 여성의 형태를 내어 놓는다. 그러면서 자신은 남성으로 변화하여 자신에게서 나온 여성과 결합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를 인간의 출생과 연결하면 창세 신화는 곧 인간의 생식 과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근친상간의 윤리적, 도덕적 터부가 신화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이러한 근친상간이 그다지 죄악시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묘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후대에 이르러 신화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문화에 영향받은 바가 클 것이다.

《이야기 인도 신화》(청아출판사)는 인도의 모든 신화를 다양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도 신화에 관한 변변한 번역서조차 없는 현실점에서 인도 신화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상당히 유익한 책이다. 까르마(업 사상)에 관한 근원적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인도의 독특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제도 등에 관한 편견으로부터 이 책은 잘못 인식된 많은 부분을 수정해 준다.

### 배미향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58

# 흥적세 조상들의 삶과 진화

로이 루이스 지음 《나는 왜 아버지를 잡아먹었나》

《나는 왜 아버지를 잡아 먹었나》(정신세계사)는 모처럼 책 읽는 재미에 빠져들게 해 준 신선한 소설이다.

제목부터 시선을 끌더니, 곧바로 소설의 세계 아닌 원시의 세계로 끌고 들어갔다. 까마득한 옛날, 흥적세의 구석기 시대에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인간보다는 원숭이에 더 가까웠던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진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이다.

최초의 인류, 그들은 나무 위의 안전했던 삶의 터전을 과감히 버리고 땅으로 내려왔다. 화산에서 불을 얻어 오고 도구를 사용하며, 인류를 위협하는 강한 동물들과의 투쟁 속에서 새 삶의 터전을 단단하게 확보한다. 안전하고도 확고한 삶의 터전을 확보한 뒤에도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기술적 진보를 추구하는 월버, 동물을 길들이는 윌리엄, 끊임없는 진화의 견인차 아버지 에드워드, 그들은 빠른 속도로 놀라운 문명적 발달을 이루어 낸다. 또한, 철학적 성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니스트, 타고난 예술적 재능을 발전시키는 알렉산더, 이들은 인류 최초의 예술가·철학가로서 인류의 문화발전을 주도한다.

고생인류학에 근거한 사실묘사로 이루어진 이런 내용들은 실제 수십만년에 이르는 긴 세월동안에 이루어진 진화의 내용이겠으나, 이 책에서는 한 가족의 삶 속에 압축시켜 놓고 있다. 그것은 이 소설이 재미뿐만 아니라 지식과 교훈을 또다른 즐거움으로 내재한 책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소설을 읽는 즐거움은 항상 재미나 감동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법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이책의 진정한 가치는 순식간에 독자를 사로잡는 재미와 충격적인 장면들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남녀간의 사랑을 처음 발견하는 장면에서의 이름답고 신선한 감동, 그리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진화를 위한 불굴의 투지를 보여주는 다수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고집하며 갈등하는 바나 아저씨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잃어가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숙연한 교훈이 있다. 또한 내면의 그림자와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현실을 초월하는 인식에 접근하고, 그리하여 '아버지 죽이기'와 '아버지 먹기'라는 제도를 성립시켜 공동체나 개인에게 계속성을 부여한다는 궁극의 상징을 발견하는 순간 충격적인 감동에 빠진다.

게다가, 매끈하고 수려한 번역자의 문체가 이 책을 읽는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 장영옥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후안리 282-7번지



한국출판문화진흥회  
이동부문 출판상  
1994

문화대중진흥회  
문화대상  
1995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

**영역별 연령별**


## 어디까지나


### 유아교육동화 **리얼리얼**으로 아이를 영재로 키우세요!

알콩달콩 유아교육동화는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 1 MBC유아프로그램 '뽀뽀뽀'의 작가 조문현 선생님이 집필
- 2 국내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20명의 생생한 그림
- 3 전체 60권을 3~4세용 30권, 5~6세용 30권으로 단계별 구분
- 4 각 단계를 인지, 사회성, 정서, 탐구력, 언어발달의 다섯영역으로 세분화
- 5 각권마다 유아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함께 보는 어른에게' 수록

유아 그림책의 차별화 선언!





전 60권 ● 3~4세용: 30권(값120,000원) ● 5~6세용: 30권(값120,000원) ● 날권 판매 가능: 각권 4,000원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